

### 대전도심 정비사업 시설물 인수인계 합동회의 개최

- 역지사지(易地思之) 관점에서 인수인계 절차 등 상호 협의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대전도심 정비사업의 부분별 시설물이 완공되고, 관리청에서 사용함에 따라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업을 총괄하는 철도공단(건설처장 하복수)과 공사를 위탁 시행한 대전시, 시설물을 사용·유지관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공사를 관리감독한 감리단의 상호 이견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결과 경부고속 대전도심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기·절차 및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간소하게 시설물 인수인계가 가능하고, 부수적으로 지출된 사업비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본부는 대전도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합동회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 '12년도 상반기 열차조정실무협의회 개최

- 무연동 작업방법 개선 등 7건 안건 해결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운)는 지난 13일 철도공사와 '12년도 열차조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번 협의회는 금년 공단에서 발생한 862건에 달하는 차단공사 중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안전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연동 작업방법 개선 및 열차서행운전 작업협의 간소화 등 7건의 안건을 해결하였다.

또한 양기관은 작업방법 및 절차 등 철저한 작업협의를 통해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본부 서상철 기자)

### 녹색철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 UIC 2012 세계고속철도대회 참가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서성호)의 장호환 과장은 지난 11~13일 3일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고속철도대회에 참가하여 공단에서 수행한 연구성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UIC(국제철도연맹)가 주관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고속철도대회는 올해로 8번째로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국이 참가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이며, 이번 대회에도 주최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대만, 이탈리아 등 10여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5개 분과에서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장 과장은 '고속철도 건설단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 주최측의 엄정한 심사를 통과하여 발표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논문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및 효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 분과 중 철도건설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채택된 논문으로 발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녹색철도연구원은 각종 국내외 철도 관련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철도연구원 장호환 기자)

### 영남본부, 위기대비 재난근무강화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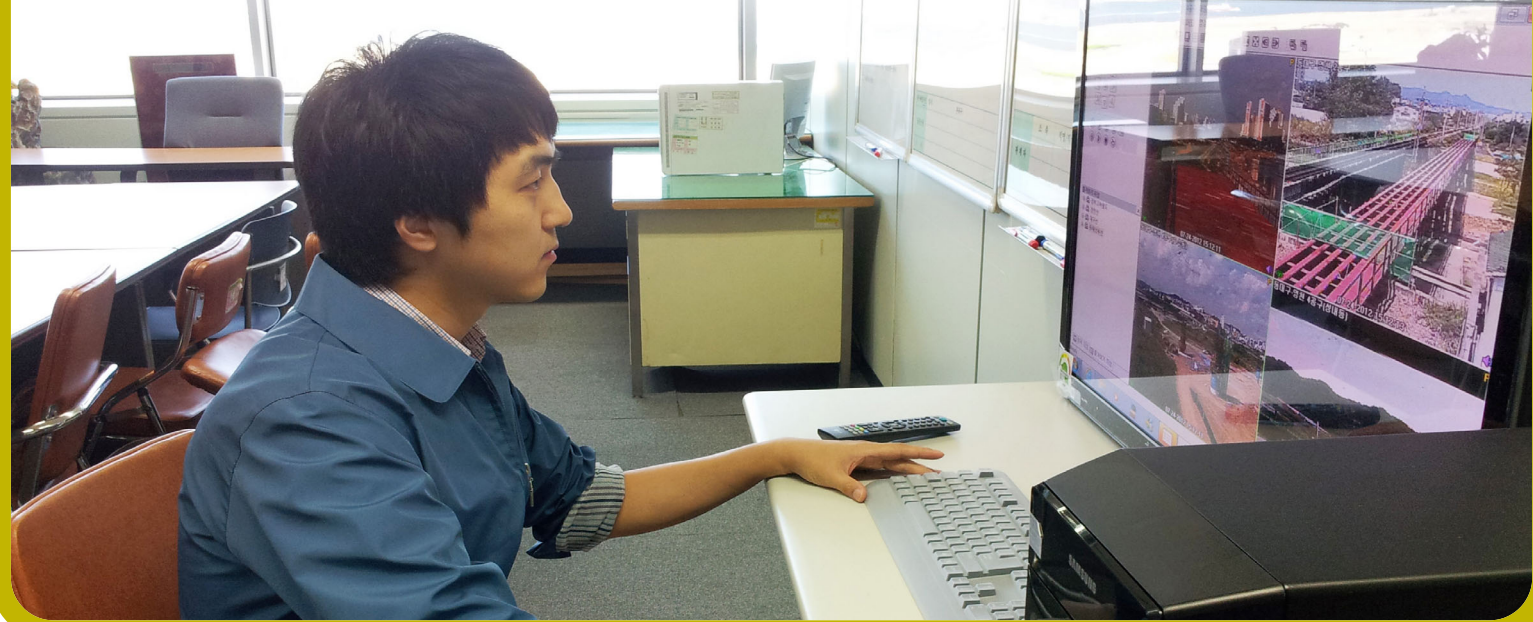
- 재난 업무의 명확한 기준과 요령 정립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위기대비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근무강화를 위해 영남재난대책상황실 근무 방법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시행하였다.

기존에 수립된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안)에서는 기상특보시 공사관리관 및 사업PM의 현장관리 책임, 당직자와 재난근무자의 재난업무 인수인계 및 공유, 재난상황의 판단 등 재난대비근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요령이 정립되지 않아 재난근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방침을 통해 대폭적인 개선으로 기상특보시 공사관리관, 사업PM의 현장확인 및 점검, 현장대리인 및 책임감리원 근무요령 등 공단과 현장의 직책별 근무요령, 재난근무자와 당직자의 재난업무범위, 재난업무인수인계 요령 등 당직자와 재난근무자의 상세근무요령, 재난근무자의 수당 및 휴무인정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재난 업무의 명확한 기준과 요령이 잘 정립되었다는 평가이다.

앞으로도 영남본부는 단 한건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근무를 강화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품질과 안전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영남본부 김정호 기자)



### 영남본부, 「멋있는 직장」 구현에 박차

- 'HL2 Day' 7월부터 운영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2012년 7월 KR열린마당 행사에서 직원간 열린 의사소통 및 가족적인 업무 분위기 등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역할 바꾸기 행사'를 시행하며 직원 모두가 본부장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쁨과 즐거움을 테마로 직원 상하간 신뢰(Trust)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Pride)을 느끼며, 동로간 재미(Fun)를 느낄 수 있는 「멋있는 직장」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선 「HL2 Day」를 7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HL2 Day」는 직원상하간 친화프로그램으로써, 첫번째 (Health)는 자신과 주변사람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1주일애 이들을 지정하여 '금주·금연의 날' 시행, 두번째 (Happy)는 부 회식문화 개선을 위해 문화, 예술 등 부서별 친목동호회 운영하는 '행복한 날' 시행, 세번째 (Like)는 에너지 절약의 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전직원이 출·퇴근시 '승용차 안타기 날'로 지정, 끝으로 (Love)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친화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영남본부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직원간 신뢰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해피비이러스를 통해 공단의 전사적 열린 기업문화 창출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영남본부 윤준원 기자)



### 공단, 대전지역 철로변 소년소녀가장 여수엑스포 문화체험행사 실시



공단은 지난 26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철도주변에 소외계층 청소년 25명, KR봉사단 9명, 어린이재단 복지사 2명과 함께 여수엑스포를 단체관광 하는 'KR소년단' 문화체험행사를 가졌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전국의 철도주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KR소년단'을 구성하여 대학진학 시까지 매월 장학금 지급, 교복 및 학용품 지원, 명절 나눔 활동, 문화체험, 철도사랑캠프 행사 등을 전개하는 'KR소년단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금번에는 문화체험 행사로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기로 하였다.

신철수 경영지원처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변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시판

### 주요뉴스 (7. 17 ~ 7. 25)

- 소유 땅 지하로 철도 통과 땀 보상(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7. 17)
- 민자역사 개발, 호텔·소형주택으로 눈 돌린다 (서울경제 7. 17)
- 호남고속철 신설노선 백지화 (무등일보 7. 17)
- 인천공항 이용객 개항 이래 최다 (인천일보 7. 17)
- KTX 고장 사고 얼버무릴 일 아니다 (서울경제 7. 17)
- 대기업판·공기업도 차차서 일감몰아주기 '도넛' (충청투데이 7. 18)
- 철도공단, 대전지역 어르신 '장수사진' 증명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7. 18)
- 청주, 철도친화도시 향한 발걸음(중도일보 7. 18)
- "GTX·유니버설 스튜디오 예산을 잡아라"(조선일보 7. 18)
- "인천공항·KTX 매각하면 모든 수단 강구해 저지"(경기일보 7. 18)
- KTX '무안 공항 경유' 물 건너갔다(전북일보 7. 18)
- 공공건설 준공후 공사비 재평가(파이낸셜 7. 18)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 제출(경북일보 7. 18)
- 철도공단, 신규사업 수익 3조 6000억 달성 추진 (서울신문 7. 19)
- 철도시설공단 상반기 임대수의 6400만원 (파이낸셜,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7. 19)
- KTX 민영화 차기경연으로(서울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국민일보, 파이낸셜 7. 19)
- 광주~부산 KTX시대 열차(전남일보 7. 19)
- 고위공직자 2,200명 청렴도 평가(서울경제 7. 19)
- 수인선, 편리한 '시민의 발'로 다시 돌아오다(조선일보 7. 19)
- 공항철도 연장 공사 입찰 공고 (인천일보 7. 20)
- '2층 KTX' 2016년 도입(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대구일보 7. 20)
- '시속 250km에 입석' 관철을(서울신문 7. 20)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잇단 노사 자율협력(파이낸셜 7. 20)
- 문제점 개선 새 KTX-산천 코레일, 오늘부터 운행 (국민일보 7. 20)
- 임기말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경제 7. 21)
-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말 따로 행동 따로'(세계일보 7. 21)
- 해외건설 진출 확대에 대한 단상(서울신문 7. 23)
- 철도시설공단 임금·대금 체불 하도급사 고발(충청투데이 7. 23)
- KTX-산천 50량 첫 운행시(충청투데이 7. 2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KTX 역세권에 짓는다(조선일보 7. 23)
- "공기업 몸집 3분의 2로 줄여 부채 개선"(파이낸셜 7. 23)
- 철도건설 설계심의 강화(파이낸셜, 충청투데이 7. 24)
- 서울~세종시 '2층 고속철' 운행 찬반 논란(경향신문 7. 24)
- 인천공항 연결철도 시공자 선정 입찰(경인일보 7. 24)
- 동반장장 외치던 대기업을 중소기업에 되레 줄였다 (동아일보 7. 24)
- 경기지역 전철·도로 지하화 '희비'(서울신문 7. 24)
- KTX 울산역 정차횟수 11월RP나 확대(경상일보 7. 24)
- "철도 적자노선, 민간에 운영권 넘긴다"(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 7. 25)
- '사통팔달' 자전거길...주말명소 각광(매일경제 7. 25)
- 폐철도...국도에...전국 자전거길 2177km (중앙일보, 파이낸셜, 전북일보 7. 25)
- 동서고속철 책정예산 50억 원 우선 집행해야(강원일보 7. 25)
- 수천억 들인 기관차 중정비센터 '비 독' (충청투데이 7. 25)